주간농업·농촌동향	외신 동향
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09.23)

1. 미국 파머스마켓 진흥 프로그램

1) USDA 보도자료(2009.09.17) 주요 내용

○ USDA Tom Vilsack 장관은 "2009 파머스마켓 진흥 프로그램(2009 Farmers Market Promotion Program)" 대상을 선정하여 발표함.

- "생산자를 알고, 식품을 알자(Know Your Farmer, Know Your Food)"는 기치의 일환으로,
- 영부인 미셸 오바마 참석하에 백악관 앞에서 개최된 FRESHFARM Market의 오프닝 행사에서 발표함.
- 미국 전역의 파머스마켓과 직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총 450만 달러 이상 투입 (37개 주 대상)

○ Tom Vilsack 장관 발언 내용:

- "파머스마켓은 소비자로 하여금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지역단위의 식품시스템에 중요한 기능을 함."
- "이번 프로그램으로 파머스마켓이 확대되고,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소비하게 되며, 지역 농민은 소득 증대 효과를 얻게 될 것임."

○ Vilsack 장관은, 신선과일과 채소류에 대한 접근성 증가를 통해 저소득층 소비자가 특히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

- 이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강조되고 있는 "전자자선이전(EBT, Electronic Benefit Transfer)"을 통해 가능하며, 프로그램에 배정된 총예산 중 18%가 EBT 장려에 투입될 것임.

○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:

- 지역 식품시스템의 장려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
- 어린이 기근 해소
- 신선식품에 대한 저소득층 소비자의 접근성 증대
- 지역사회의 건강과 영양 상태 개선

2) 우리나라에의 시사점

○ 우리나라도 소비자 부담 경감 및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소비지에서의 **직거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행 중**

- 그 예로, 유통·식품·외식업체와 생협 등 소비지 단체에 산지조직과의 **직거래 매입자금 융자** 지원('09 : 2,063억원)
-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**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** 설립('09.1)
-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및 **생산자단체 직접판매시설** 확충
- 축산물 플라자(식육식당+판매점), 브랜드육 타운 등 생산자단체의 **축산물 전문 판매시설** 확충

○ 또한 녹색식생활과 확산을 위해 Local Food(地産地消)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음(장태평 장관 2009.8.21일 강의 중)

- 이는 지역 사회 개개인(특히 저소득층)의 건강 유지와, 지역경제의 활성화, 탄소 절감을 통한 녹색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

○ 그러나 직거래 확대를 위한 정책은 산지보다는 소비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. 또한 녹색식생활 확산 및 Local Food 확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파머스마켓은 일부 지자체 및 지역농협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그 규모면에서 매우 미흡함.

○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내역설명서에 따르면 파머스마켓과 관련된 예산이 없어 파머스마켓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따라서 파머스마켓의 활성화 위해서는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2. 일본 소수력발전 추진

1) 일본농업신문 (2009.09.20) 주요 내용

○ 일본 환경성은 2010년부터 하천과 농업용수 등을 이용한 소수력발전을 추진함.

- 환경성은 클린에너지로서 보급에 힘을 싣고 있음.
- 이를 위해 환경성은 지역주민의 참가를 얻고, 시설물을 설치하는 민간비영리단체(NPO)나 회사에 대한 지원을 실시
- 2010년 사업비는 4억엔으로 전망

○ 소수력발전은 하천에 지류를 만들어 다시 본류로 합류할 때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식의 구조임.

- 이산화탄소(CO_2) 배출이 극히 적은 것이 특징
- 발전된 전력의 용도를 주민이 정하는 등 시민참가형

○ 출력 1,000㎾의 설비를 설치하는데 약 12억엔이 소요되는 등 높은 비용이 보급의 저해요인임.

- 소수력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보급을 촉진

○ 특히, 시민참가형의 소수력발전을 보조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를 자신과 가깝게 여기는 의식 형성이 목적임.

- 지역 주민이 ▷시설설치를 위한 출자와 기부 ▷청소 등 유지관리 ▷생산된 전기 용도 결정 ▷환경교육에 활용 등의 방식으로 참여

○ 환경성은 “지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주민들이 스스로 생산함으로써,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과 행동이 성숙해지는 모델을 확립하고자 한다.”고 표명

2) 우리나라에의 시사점

○ 소수력발전소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운영됨.

- 아시아에서는 중국·일본이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으며, 그외 미국·독일·프랑스·노르웨이 등 여러 선진국에서 운영 중임.

○ 우리나라는 소수력 가용자원이 다른나라에 비해 뒤지지 않음에도 소수력발전소 건설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.

- 1개소당 발전용량이 중국 228㎾, 일본 896㎾, 유럽 평균 1,200㎾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약 1,500㎾로 외국에 비해 비교적 큰 편임.
-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소수력발전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운영에 따른 경제성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.

○ 소수력발전의 장점과 선진국의 건설 현황을 감안할 때, 우리도 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확대보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- 소수력발전소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소수력 자원 특성에 적합한 중·저낙차용 수차발전기를 국산화 개발하고, 이를 통해 수차발전기의 제작비용 및 소수력발전소 건설비를 절감하며, 수차발전기 운영에 따른 유지비의 절감이 필요함.

○ 소수력발전소 운영시 장점 및 기대효과

- 국내 부존자원 활용 가능
- 전력생산외에 농업용수 공급, 홍수조절 등에 기여
- 일단 건설후 운영비 저렴
- 화석연료 절감 탄소 배출량 저감
- 신·재생에너지 활용 증대
- 농촌지역 저탄소 녹색성장 등